

# 泰國 金融産業의 문제점과 金融改革

안종량\*

류건우\*\*

- I. 머리말
- II. 태국 금융시장의 문제점
- III. 태국정부의 금융개혁 조치
- IV. 은행구조조정
- V. 요약 및 결론

## I. 머리말

1997년 7월 태국에서 시작한 통화위기의 여파가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이웃 동남아국가로 확산되어 드디어 한국, 일본에까지 그 여파가 미치게 되어 동아시아 전역에서 전 세계로 확산하게 되었다. 그 중에서도 심각한 타격을 입은 태국, 인도네시아, 한국이 차례로 IMF로부터 구제금융을 받게 되자, 동아시아 통화위기의 원인과 금융산업에 대한 연구가 관심을 끌게 되었다.

1997~98년에 걸친 동남아시아의 경제위기는 이 지역 국가의 금융업시대의 막을 내리게 하였다. 태국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의 경우와 같이 정부의 느슨

---

\* 부산외국어대학교 태국어과

\*\* 계명대학교 통상학부

한 통제하에서 변칙대출의 단점이 극명하게 드러났다. 태국도 경제위기 기간중 금융산업에 대한 두드러진 변화는 통합음직업, 외국은행과의 경쟁, 은행·기업·정부 상충부의 점진적인 변화 태도, 새로운 소비자 요구의 대두를 들 수 있다.

태국경제와 은행의 구조조정에 대한 IMF 평가에서, IMF 피셔(Stanley Fischer) 부총재는 금융 및 기업의 구조조정의 진전으로 1999년을 기점으로 태국경제가 바닥을 벗어나서 1999년 6월 이후 더 이상 IMF의 구제금융 잔액 U\$29억을 인출하지 않고 성장을 지속하여 제9차 의향서를 끝으로 2000년 6월 19일에 IMF와의 대기성차관협정(Stand-By Arrangement)을 종료한다고 하였다(IMF 2000).<sup>1)</sup>

본 연구에서는 1997년 8월 외환위기 이후부터 2000년 6월까지의 자료를 토대로 동아시아에서 제일 먼저 발생한 태국 외환위기의 주요한 원인이 된 태국금융산업의 문제와, 태국의 은행구조조정 현황과 성과, 그리고 향후 전망을 살펴보고자 한다.

## II. 태국 금융시장의 문제점

태국에서 현대적인 금융체계가 수립된 것은 1942년 태국중앙은행(Bank of Thailand)이 설립된 이후라고 할 수 있으며, 1950년대까지 정부금융기관인 저축은행, 주택은행 및 금융공사가 설립된 것을 비롯하여 상업은행의 설립이 활발히 추진되었다. 1970년대 파이낸스회사의 성장과, 1975년 태국증권거래소(The Stock Exchange of Thailand: SET)의 설립 등은 태국금융산업의 발전을 특징짓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외환위기가 발생하기 이전까지는 태국정부는 장기적으로 상업은행을 육성하여 외국은행의 지점설립을 견제하면서 상업은행이 금융시장을 주도하도록 지원하여 왔다. 금융시장구조는 중앙은행을 중심으로 5개의 국책은행, 15개 상업은행 및 14개 외국은행 지점이 영업활동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일반은행과 증권회사의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특수한 금융기관으로 한국의

1) 또한 IMF 캉드쉬(Michel Camdes) 전총재도 2000년 2월 UNCTAD 총회의 은퇴연설에서 태국이 IMF의 우등생으로 졸업하게 된 점을 높이 평가한 바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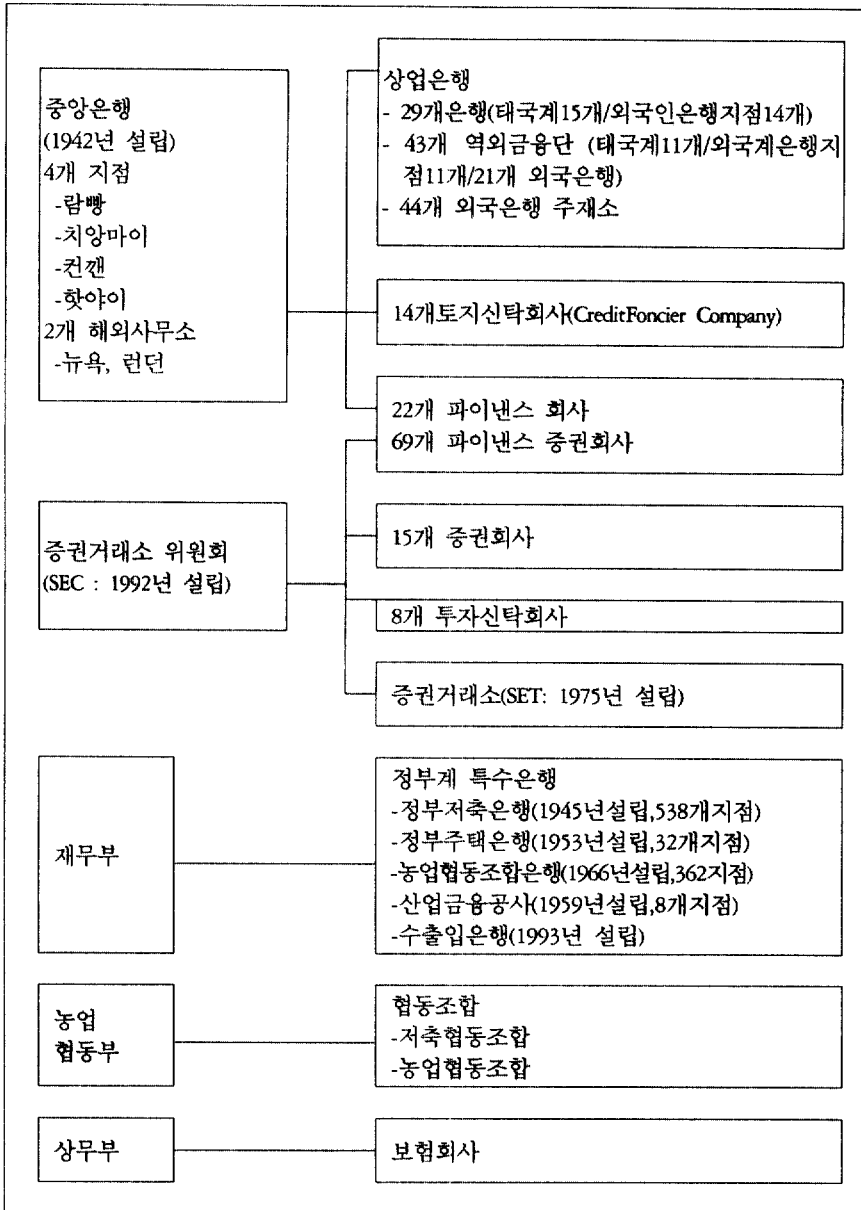
종합금융회사와 유사한 파이낸스회사 등의 비은행계 금융기관이 금융시장을 형성하고 있었다(<표 1>참조).

태국의 상업은행은 예금, 대출, 외환 등 종합적인 은행업무를 하고 있었다. 태국정부는 1964년 이후 하나의 외국은행에 대하여 하나의 지점 개설을 원칙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44개의 주재사무소는 송금과 같은 부분적인 영업활동 외에 태국의 금융사정을 조사하여 본국에 제공한다. 15개의 태국상업은행은 각 은행마다 설립경위와 경영자 및 고객층은 상이하나, 몇 가지 공통점은 은행경영이 동족집단에 의한 폐쇄적인 경영방식을 고수하고 있으며, 단기여신에 편중되고 있었으며, 은행측의 여신심사가 과거의 실적과 연고 등을 중시하는 등 절차가 허술한 편이었다(權耿德 1997, 195-200).

맥킨지보고서는 방콕메트로폴리탄은행(Bangkok Metropolitan Bank: BMB)의 경영실패 사례를 다음과 같이 들고 있다. “태국의 재벌기업인 데차파이분(Tejapaibul)가는 1950년에 방콕메트로폴리탄은행을 설립하였다. 1970년대와 1980년대를 거치면서 데차파이분가는 금융분야를 더욱 강화하여 퍼스트방콕시티은행(First Bangkok City Bank)과 아시아은행(Bank of Asia)의 지배주주가 되었다. 변칙경영으로 40%가 넘는 부실채권을 안게 된 데차파이분가는 경영권 고수로 인한 대만은행과의 투자유치실패로 태국정부가 BMB를 인수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정부가 BMB 주가를 낮게 평가함에 따라 데차파이분가는 경영권에 대한 집착으로 1억 달러에 달하는 손실을 보게되었다(맥킨지 금융팀 1999, 408-409).”

태국의 은행부문의 특징은 일반 상업은행 외에 파이낸스회사의 난립을 들 수 있다. 이들이 유통시킨 자금은 태국의 경제성장에 큰 역할을 하였다고 볼 수도 있으나 은행부문에 대한 정부의 과도한 규제는 현재의 부작용으로 이어지는 원인이었다고 할 수 있다. <표 3>을 보면 15개의 상업은행이 저축, 대출 및 총 자산부문에 전체 금융기관의 65%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비은행 금융기관중 91개의 파이낸스회사가 20% 전후를 차지하고 있다.

<표 1> 금융개혁 이전의 금융기관 조직



\* 자료: 權耿德(1997, 196).

<표 2> 태국의 상업은행 현황 (1996년 8월)

은행명		설립년도	비고
1	Siam Commercial Bank	1906	양실계
2	Nakorhonthon Bank	1933	화교계
3	Bank of Asia	1939	화교계
4	Siam City Bank	1941	화교계
5	Bangkok Bank of Commerce	1944	화교계
6	Bangkok Bank	1944	화교계
7	Bank of Ayudhya	1945	화교계
8	Thai Farmers Bank	1945	화교계
9	Laem Thong Bank	1948	화교계
10	Union Bank of Bangkok	1949	화교계
11	Thai Danu Bank	1949	정부계
12	Bangkok Metropolitan Bank	1950	화교계
13	Thai Military Bank	1957	제향군인
14	First Bangkok City Bank	1960	화교계
15	Krung Thai Bank	1966	정부계

\* 資料: さくら總合研究所, 「タイでの事業展開」, 1996.

<표 3> 태국 主要金融機關 영업실적

금융기관	기계저축		대출		총자산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1. 상업은행	2,372,232.4	68.4	4,230,519.3	68.5	5,013,723.9	65.5
2. 파이낸스회사	571,994.9	16.5	1,301,392.6	21.1	1,588,126.4	20.8
3. 보험회사 <sup>p</sup>	94,074.9	2.7	24,616.2	0.4	126,187.0	1.6
4. 저축협동조합 <sup>e</sup>	141,100.0	1.4	165,500.0	2.7	194,000.0	2.5
5. 정부저축은행	179,160.5	5.2	39,438.2	0.6	210,487.3	2.8
6. 농업협동조합은행	44,913.0	1.3	125,683.2	2.0	159,962.8	2.1
7. 정부주택은행	46,774.2	1.3	142,040.3	2.3	154,057.7	2.0
합계	3,470,308.0	100.0	6,178,173.2	100.0	7,653,325.6	100

\* 註: p=잠정치 / e=추정치, 기타금융기관은 생략

\* 資料: Bank of Thailand, Quarterly Bulletin. 1996. 12.

태국은 1980년대 이후 경제개발에 소요되는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자본시장개방 정책을 추진하였다. 초기에는 외국인직접투자 유치를 중심으로 추진되던 시장개방을 1990년대 들어 외국인에 대한 자본시장개방과 외국은행으로부터의 차입으로 전환하였다. 1990년 찻차이(Chatichai Choonhavan) 정부는 시장을 개방한 사회주의 국가인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인도차이나 3개국에 대한 발전 잠재력을 인식하고 인도차이나에서 태국의 경제적 역할증대를 위하여 자본자유화를 결정하였다.<sup>2)</sup> 이후 아난(Anand Panyarachun) 정부가 1992년에 이를 승인하고 추언(Chuan) 정부가 1993년 9월 이 계획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역외금융시장인 방콕국제금융센터(BIBF: Bangkok International Banking Facilities)를 창설하여 자본자유화를 추진하였다(經濟企劃廳調查局 編 1997, 116).

BIBF설립으로 15개 국내 상업은행중 11개 은행에 대해 기존의 은행업무 외에 역외금융업무를 허가하였고, 태국에 지점개설을 하지 못했던 외국은행에 대해서도 역외금융업무를 허가하게 하는 투자유인정책을 펴서 21개의 외국은행에 대해 BIBF에서 역외금융업무를 허가하였다(Bangkok Post 1998/05/25). 반한(Banharn)과 차왈릿 정부는 BIBF에 참여하는 은행에 대해 추언 정부보다 더 많은 허가를 남발하였다.<sup>3)</sup> BIBF를 통해 건전성여부가 감시되지 않고 유입된(unmonitored inflow) 저리의 외자는 유동성 과잉을 초래하였다.<sup>4)</sup> 태국은행들은 외자의 중개를 통해 많은 돈을 벌 수 있었고 준고정환율제도하의 바트화의 안정 때문에 환 위험에 노출되리라고 여기지 않았다. 그러나 도입된 외자가 본래 목적대로 대출되지 않고 당시까지만 해도 단기 수익성이 높은 국내의 부동산부문 및 단기차익을 노린 주식 및 채권투자 등의 비실물부문에 투자되면서 1991~92년 사이 어느 정도 진정국면에 들어간 버블경제(bubble economy)문제가 다시 발생

- 
- 2) 외환에 대한 모든 장벽이 제거되어야 한다는 자본자유화규정은 IMF 조항 8조에서 언급되고 있다.
  - 3) 태국정부는 외국은행의 외화표시 대출증대와 태국금융기관의 경쟁력 향상을 목적으로 BIBF에 우수한 외국은행을 유치하기 위해 대출성과를 기준으로 1970년대 이후 허가하지 않은 외국은행의 국내지점개설을 허용하는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단기간에 막대한 규모의 해외차입금이 국내에 유입하게 되었다.
  - 4) 순 자본유입이 1990년에 GDP의 8%에서 1995년에는 GDP의 14%로 증가하였다 (Chalongphop Sussangkarn 1998).

하였다. 즉, 부동산시장에서의 공급과잉은 미분양상태로 이어지면서 부동산회사와 부동산을 담보로 단기 해외차입금으로 장기대출을 해 준 파이낸스회사(finance company)가 부실화하면서 도산하기 시작하였고, 은행 또한 동반 부실 징후가 드러나기 시작하였다.<sup>5)</sup>

이와 같이 경제위기와 정치불안이 증가하게 되자 그 동안 경상수지 적자를 보전하여 왔던 해외직접투자(FDI: Foreign Direct Investment) 자본유입이 주춤하게 되었고, 포트폴리오(portfolio)투자자본의 이탈이 가속화되어 증시붕괴를 초래하게 되었으며, 외국은행의 만기연장거부 및 장기대출의 기한축소로 태국경제는 큰 혼란을 겪게 되었다.<sup>6)</sup>

### III. 태국정부의 금융개혁 조치

이 장에서는 IMF가 1997년 8월 20일 태국에 대해 긴급 구제금융지원을 조건으로 양측이 합의한 IMF 경제개혁 프로그램 하에서 태국정부가 행한 은행을 중심으로한 금융개혁조치를 살펴본다.

외환위기 초기에 외환보유고 현황과 금융기관의 부실채권규모 등의 정부의 발표내용에 대한 불신이 팽배하고, 태국중앙은행 산하단체인 금융기관발전기금(Financial Institutions Development Fund: FIDF)이 부실이 심한 방콕상업은행(Bangkok Bank of Commerce)과 파이낸스회사에 대한 무분별한 지원을 하는 등의 초기 처리 실패로 태국경제에 대한 대외신인도가 급락하게 되었다. 이에 외국인 투자자

5) 1996년부터 시작된 경기침체로 부동산가격이 폭락하고 기업의 수익이 악화되자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이 급속히 증가하게 되었다. 1997년 2월 방콕에서만 40만 채의 주택과 아파트가 미분양으로 남아 있으며, 이는 3년 전의 16만 5천 가구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다. 더구나 당시 건축중인 27만 호까지 합치면 그 사태는 매우 심각하다. 사무실 공실율도 2년 내에 35%에 이르게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Asiaweek 1997/02/28, 50-52).

6) 1995년 말 이후 태국의 주가지수(SET: Stock Exchange of Thailand)는 1995년 말 1,231포인트, 1996년 말 803포인트, 1997년 12월 400포인트, 1998년 3월 4일 530포인트, 9월 255포인트로 폭락하였다. 1996년 1월-97년 12월 2년 사이 주가 하락율이 70%에 근접하였다(<http://www.set.or.th>).

본의 이탈이 지속되었고 단기해외 차입금의 만기연장 거부가 급증하여 외화유출과 외환보유고가 급속히 감소하게 되자 정부는 IMF에 구제금융을 요청하게 되었다.<sup>7)</sup>

태국정부는 외환위기의 주원인이 중앙은행의 느슨한 부실채권 관리에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한 감독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발표하였다. 태국은 외환위기 이전에는 1년 동안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를 부실채권으로 분류하였으나 1997년 11월 제2차 의향서에서 이를 6개월로 단축하였고 제3차 의향서에서는 3개월로 단축하여 1999년부터 적용하기로 하여 보다 적극적인 대출감독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금융기관의 대출금에 대한 자기자본 비율을 1998년 내에 BIS기준인 8%보다 높게 설정하여 은행의 건실화를 유도하였다.

태국정부는 1997년 10월 14일 금융부문의 개혁을 위해 공매와 금융감독 기능을 갖는 금융구조조정공단(Financial Sector Restructuring Authority: FRA)과 부실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의 매입과 처리를 전담하게 하는 자산관리공사(Asset Management Corporations: AMC)를 신설하고 예금자 보호를 위해 금융기관발전기금(FIDF)의 기능을 강화하는 조치를 발표하였다. 신설된 FRA는 IMF와의 합의를 향인 태국경제구조조정 정책의 종합적인 추진과 중앙은행에서 금융감독권을 이양받아 경영상태가 악화된 금융기관의 합병과 증자에 관한 문제를 관할하게 하였다.

예금자 보장제도를 도입하여 FIDF에 각 금융기관들이 총예금액의 0.1%를 예치하게 하여 금융기관 도산시 예금자보호 재원으로 활용하기로 하였다. 국영 크룽타이은행(Krung Thai Bank)과 자회사인 크룽타이타나킷(Krung Thai Thanakit)은 발표일부터 75일 이내에 예금자에 대한 예금상환을 보장하였다.<sup>8)</sup> 외국인투자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외국인투자에 장애가 되어왔던 법개정을 살펴보면, 은행과 파이낸스회사의 법정 최소자본금을 상향조정하고 금융기관에 대한 외국인의 지분을 확대하고 외국인의 경영권 장악을 허용하는 적대적 M&A를 허용하게 했다.

7) 태국정부는 1997년 3월과 5월의 대규모 환투기공세를 방어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외환시장에 개입하는 정책을 취하여 현물시장에서 60억 달러, 선물시장에서 234억 달러를 풀었다. 김원호 외(1997, 53-55).

8) 예금상환을 보증하는 방법으로 태국은 한국의 경우와는 달리 이자는 보장하지 않고 원금에 대해서도 5년 만기 연리 2%의 채권을 발행해서 주었기 때문에 예금자들이 이 채권을 시중에서 현금화하려면 원금의 60% 정도밖에 받을 수 없게 되었다.



자산상태가 악화상태에 있는 금융기관의 부실 위험을 감소시켜 국제적 기준의 건전성을 확보하게 함으로써 추락한 태국 금융기관의 신인도를 회복시키기 위해 법정자본금을 상향조정하였다. 파이낸스회사에 대한 외국인지분 제한을 대폭 완화하여 기존의 5년 동안 25%지분보유 조항을 10년 동안 100% 지분보유로 상향조정함으로써 외국인자본유치 촉진 및 금융기관의 자본건전성 향상을 모색하였다(Limthammahisorn 1997).

집권 1년만인 위기에 대한 처리실패 등으로 1997년 11월에 사임한 차왈릿 총리의 뒤를 이은 추언 총리의 인식은 과감한 부실 금융기관의 정리만이 경제위기 탈출의 대안임을 인지하여 금융개혁과 구조조정을 가속화하기 위해 1997년 12월 8일 부실 경영으로 인해 영업정지에 들어간 58개 파이낸스회사 가운데 56개 회사를 폐쇄시키는 조치를 단행하였다. 폐쇄된 56개 파이낸스회사의 부실채권은 새로 신설된 자산관리공사(AMC)에 이전되어 청산과정에 있다.<sup>9)</sup> 또한 금융개혁에 대한 정부의 정책방향에 대해 태국 중앙은행장인 짜뚜몽곤 쏘나꾼(Chaturmongol Sonakul)의 1998년 9월 17일 방콕 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방콕메트로폴리탄은행(Bangkok Metropolitan Bank), 싸얌시티은행(Siam City Bank), 그리고 랏따나싌은행(Radanasin Bank)이 결국에는 외국의 금융기관에 의해 인수될 것이다”라고 하였다. 인터뷰 하루 전날인 1998년 9월 16일 중앙은행에 수정된 증자 계획서를 제출한 “나콘톤은행(Nakornthon Bank)도 조만간에 외국의 금융기관에 팔릴 것으로 예상된다([http://www.bangkokpost.net/170998/170998\\_Business01.htm](http://www.bangkokpost.net/170998/170998_Business01.htm))”고 한데서, 정부는 부실금융기관의 신속한 퇴출과 국유화후 해외매각을 통한 금융산업의 경쟁력강화에 정책방향의 초점을 두었음을 알 수 있다.

정부는 국민이 낸 세금으로 출자를 할 때 기존주주에게도 책임을 물어 기존주주의 주식 1천주를 1주로 감자(減資)시켰다.<sup>10)</sup> 금융시장 개혁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증권회사에 대한 감독기관 설립, 헤징(hedging)기법 도입, 채권시장 개방, 적립기금 보충 및 국제표준 회계방식 도입 등을 들 수 있다. 이 가운데 개혁

9) 폐쇄된 56개 파이낸스회사의 부실채권규모는 8,000억 바트(U\$200억)에 달했다 (Bangkok Post 1998/03/03).

10) 한국의 경우 정부가 제일은행과 서울은행에 출자하면서 8.2대 1로 감자(減資)를 한 것에 비하면 엄청난 책임추궁이라고 하겠다.

조치의 핵심은 증권회사에 대한 외국인 소유지분 확대로 기존의 49% 소유제한을 51%로 확대하여 외국인 최대주주 탄생을 가능하게 하였다. 이러한 조치로 인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외자확보와 단기적으로 국내저축이 활기를 띠 것으로 기대된다.

1999년 3월 들어 태국정부는 파산법, 국영기업 민영화법안, 부동산 임대차법안, 담보물처리법을 비롯한 IMF와 합의한 11개 경제개혁법안중 가장 중요한 법률중 하나인 개정파산법이 가장 먼저 하원을 통과하여 3월12일 거의 정부 원안대로 162대 1로 상원을 통과하였다.<sup>11)</sup> 2대 핵심 개혁법중 하나인 담보물 처리법안도 170대 2로 통과하였다. 타린(Tarrin) 재무장관은 개혁법의 통과로 은행과 부채기업의 부실채권을 정리할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했다고 하였다.

신파산법 전담법정으로 연간 3,000여건 파산관련 법정제소 처리 예상, 3조 바트에 달하는 은행 부실채권 해소에 필요한 법적 구조를 갖춘 셈이다. 과거의 파산법정은 채무자 의무태만으로 10년 끌기는 보통이었으며 최장 35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법 절차가 끝나지 않은 경우도 있다. 현재 13명 전담 법관 50명 전담 법률요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앞으로 전담 법관 60명 전담요원 85명으로 늘릴 계획이다(Business Day 1999/06/18).

추언 정부의 과감한 금융부문개혁 조치로 IMF와 외국투자자들은 태국의 구조조정 의지에 신뢰를 보내게 되었다. 즉, 부실 파이낸스회사의 대거 폐쇄조치는 IMF프로그램 하에서 태국정부가 경제구조개혁을 위해 취한 첫 번째 의미 있는 조치로 태국정부의 개혁노력이 재평가되는 계기가 되었다.<sup>12)</sup>

11) 통과한 개정파산법 내용은 1) 파산선고 대상 부채 최저규모를 개인은 1백만 바트(약 27,700달러) 법인은 2백만 바트(약 55,500 달러)로 한다. 2) 개인(회장 등)이 회사 부채를 개인자격으로 보증했을 경우도 동 보증인은 회사부채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 또한 담보물의 시장가치가 자금을 빌릴 당시 시점에 부채를 상회하는 경우에도 파산선고 대상이 된다(반대파 상원들은 개인은 회사부채를 보증했다라도 책임을 져서는 안된다고 주장했었고 또한 자금차입 당시 담보가치가 차입대금을 상회할 경우도 파산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3)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은 최고 100,000바트의 자산외에는 가질 수 없다(반대파 상원들은 파산인이라도 시가 2백만 바트 이하라면 거주할 주택만큼은 주어 져야 한다고 주장했었음). 4) 파산선고를 받으면 최소한 3년간은 동 파산상태에서 해제되지 않는다(반대파 상원들은 1년 후에 해제를, 정부원안은 10년 후 해제를 주장했음).

<표 4> 은행과 파이낸스 회사의 경영실적

(단위: U\$달러)

금융기관명	1997년 ¼분기	1998년 ¼분기
<b>은행</b>		
1. Krung Thai Bank	25억	37만8,000
2. Bank of Asia	4억2,700만	-33억 7,000만
3. Siam Commercial Bank	22억3,000만	1억1,675만
4. Thai Military Bank	7억 9,077만	-12억8,000만
5. Thai Danu Bank	3억77만	-526만
6. Bank of Ayudhya	12억1,000만	-5억2,905만
7. Union Bank of Bangkok	6,059만	-5억4,188만
<b>파이낸스 회사</b>		
8. Krung Thai Thanakit	7,126만	1,758만
9. Phatra Thanakit	2억486만	-1,993만
10. Thailand Investment and Securities (Tisco)	1억9,414만	-14억4,000만
11. National Finance and Securities	9,197만	-16억3,000만
12. IFCT Finance and Securities	724만	-2억3,897만
13. Ayudhya Investment (Aitco)	3,654만	-6,781만
14. First City Investment	4,207만	-1억8,739만
15. Book Club	642만	-2억3,262만
16. Ekachart Finance and Securities	2,444만	-7억5,518만
17. Bangkok Investment	3,099만	-4,594만
18. Bangkok First Investment	3,179만	-1,478만
19. Kiatnakin Finance	216만	-6억2,900만
20. Sicco	314만	-1억9,941만

\* 자료: Bangkok Post, April 23, 1998. "More hefty losses by firms and Banks",  
 <[http://www.bangkokpost.net/today/230498\\_Business02.htm](http://www.bangkokpost.net/today/230498_Business02.htm)>로부터 작성.

12) 그 대표적인 사례는 1998년 3월 중순 1주일간 미국을 방문한 추언 총리에게 대한 미국과 세계은행(IBRD)의 지원이었다. 미국의 지원이 발표되자 태국경제가 안정을 찾는데 큰 기여를 하였으며 상환 압박에 있는 380억 달러에 달하는 단기채무 연장을 순조롭게 하였다(TIME 1998/03/30, 12-19).

#### IV. 은행구조조정

1997년 이후 대부분의 은행과 파이낸스회사는 전년에 비해 엄청난 비율의 적자를 보게 되었다. 1999년부터 적용되는 3개월 이상 연체된 부실여신(non-performing loans: NPLs) 비율이 1999년 들어 급격히 증가하다가 2000년 4월 전체 부실채권 비율은 36%대로 크게 낮아졌다(<표 5>참조). 이는 1999년 말에 부채구조조정 작업이 활발히 전개된 때문이었다. 태국중앙은행은 2000년도에 4대 시중은행이 자회사 형태로 부실채권 관리를 전담할 별도 법인을 설립하게 될 것을 감안할 때 10% 이상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Business Day 1999/ 06/18)

각 은행들은 부실채권의 규모를 줄이고 채무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상환기간 연장과 부실채권을 투자로 전환해 주거나 일부를 탕감해 주었으며, 부채 구조조정방법 이외에 이자율을 지속적으로 인하하고 있다.<sup>13)</sup> 1999년 2월 현재 민간기업 부채 구조조정 대상에 올라 있는 부채규모는 6,800억 바트(189억 달러) 수준이다. 이 가운데 1,230억 바트(34억 달러)가 법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부채 구조조정 위원회에서 조정이 완료되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전체적으로 부채구조조정 작업이 느린 것으로 평가하고, 기업 부채구조조정 작업 지연이 경제회복의 주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sup>14)</sup>

<표 5> 태국 은행의 부실채권 규모 (1999년)

	99.2	99.3	99.4 <sup>1)</sup>	99.5	99.6	99.7	99.8	99.9	99.10	99.11	99.12
비율(%)	46 (BP)	42.31 (BP)	42.06 (BP)	47.72 (N)	47.47 (N)	47 (BP)	46.81 (BP)	45.33 (BP)	43.82 (BD)	42.27 (BD)	38.93 (BP)
금액(바트) /달러	2.31조 658억	2.71조 732억	2.61조 705억	2.558조 691억		2.64조 660억	2.618조 660억	2.569조 660억	2.46조 646억	2.36 620억	2.17 571억

13) 2000년 4월 들어 저축예금이자율이 2~3%, 대출이자율은 7~8%로 낮아졌다. 연말까지는 예대마진 폭이 좁아질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Bangkok Post 2000/04/24).

14) 1999년 4월말 기준 부채구조조정 실적은 목표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총 대상부채의 14.7%에 불과하였다(Business Day 1999/06/18).

	2000.1	2000.2	2000.3	2000.4	2000년말 예정
비율(%)	38.62 (BP)	38.07 (BP)	37.24 (BP)	36.47 (BP)	10 (BP)
금액(바트) /달러	2.08조 558억	2.05조 550억	1.99조 510억	1.95조 500억	

\* 부실채권의 규모나 비율이 언론매체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음.

바트/달러의 환율이 월별로 차이가 있음을 감안할 것.

(BP): Bangkok Post지, (N): Nation지, (BD): Business Day지를 참조로 저자가 작성.

외환위기 이후 태국 상업은행들은 경영권 방어를 위해 증자를 통해 스스로 생존의 길을 모색하거나, 자구책을 마련하지 못해 정부에 인수되어 국유화가 되거나, 부실의 정도가 심해 폐쇄의 길을 가거나, 해외은행에 매각되거나, 합병의 길을 걷고 있는 등 다양한 형태로 구조조정을 하고 있다. 태국정부는 금융개혁과 외국인투자 환경의 개선으로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해 외국인의 은행주 취득 상한선인 25%를 철폐하여 외국인의 M&A를 허용하자 외국인투자가 증가하게 되었다. 이 장에서는 15개 상업은행의 구조조정을 크게 4그룹으로 나누어 살펴본다.

## 1. 해외매각 은행

외국은행에 매각된 예를 보면, 1998년 화란의 ABN AMRO은행이 아시아은행(The Bank of Asia) 지분 75%를 1억 8,400만 달러에 인수하여 태국에서 117개 소매점포를 확보하게 되었다. 60억 바트의 초기투자로 대주주로 부상한 싱가포르개발은행(The Development Bank of Singapore)은 타이타누은행(Thai Danu Bank)을 인수하였다. 싱가포르개발은행은 1999년 70억 바트를 추가로 투자하는 등 꾸준히 투자를 늘려왔으며, 2000년 5월 들어 135억 바트의 증자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번 증자로 싱가포르개발은행은 58.28%의 지분을 가진 최대주주가 되었으며, 398억 바트에 달하는 부실채권의 원만한 해결과 은행의 장기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계획의 일환이라고 하였다(Nation 2000/05/03).

이와 같이 외국은행들의 태국은행의 인수로 인하여 외국은행들은 처음으로 태국에서 지점망(branch network)을 가질 수 있게 되었고 또한 태국은행과 동등한 위치에서 경쟁하거나, 어떤 경우는 더 좋은 영업여건에서 경쟁을 할 수 있게 되었다.<sup>15)</sup> 외국계 인수은행들은 소매점포 및 자동인출기(ATM) 확보로 소매업 경쟁이 가능하게 되면서 은행권 시장점유 판도에 큰 변화가 일기 시작하였다. 정부와 외국자본에 의한 부실 은행의 M&A가 1997년 하반기에 발표되자 이들 은행에 대한 예금액이 증가하게 되었다. 외국계 은행은 서비스의 다양화와 이익 극대화를 위한 영업전략을 구사하기 시작하였다. ABN AMRO 은행이 인수한 아시아은행은 최초로 토요일 영업을 시작하였으며, 경영실적도 2000년 1/4분기 외환위기 이후 적자에서 벗어나 2억 1,000만 바트의 흑자로 돌아섰다. 싱가포르개발은행이 인수한 타이타누은행은 과감하게 저축이자율 인하를 단행하기도 하였다.

외국계은행의 소매금융 진출로 태국은행들은 외국계은행들과 힘든 경쟁을 하게 되었다. 외국은행들은 싼값의 자금을 끌어오는데 단연 유리하고, 사무환경과 기술경쟁력이 탁월하며,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 서비스하는 데 경험이 풍부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고도의 경영노하우를 오랜 기간에 걸쳐 갖고 닦아 온 베테랑들이다 라고 방콕은행장이 사내자료 배포를 통해 전 직원들에게 긴박해진 경영환경을 주지시켰다(Business Day 1999/06/10). 이에 따라 태국내의 외국계 은행의 시장점유율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sup>16)</sup> 타이타누은행의 은행정상화 5개년 계획에 의하면 3~4년 이내에 5%에 불과한 현 대출시장 점유율을 두 배 정도로 늘릴 계획이며, 소매 금융도 대폭 확대해서 수 년 내에 전체 대출 가운데 소매대출 비율을 현재의 20% 수준에서 30%대로 높일 예정이라고 하였다

15) 1994년 전국에 고르게 지점을 개설하려는 취지에서 수도권지역에 지점을 개설하려면 지방에도 지점을 개설해야하는 중앙은행 정책에 따라, 1998년 대형은행은 58.99%, 중소은행은 72.62%로 중소은행에 방콕지역 지점개설 비율을 높게 책정하였다. 그러나 외국계은행(Bank of Asia, DBS Thai Danu Bank, Standard Chartered Nakornthon Bank)은 세계적 수준의 은행자본이면서도 합병 전에 중소 은행이었던 이유로 지방보다는 수익이 많은 수도권지역에서 국내은행보다 더 좋은 조건에서 영업할 수 있게 되었다.

16) 메릴리치 증권사는 2000년 1월 보고서에서 태국 소재 외국계 은행들이 현재의 4% 수준의 시장점유율이 향후 3~5년 사이에 20-30% 수준으로 크게 증가될 것이라고 분석하였다(Bangkok Post 2000/01/26).

(Nation 2000/05/03). 이처럼 싱가포르개발은행이 자금을 계속 투자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태국의 금융시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데 기인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 2. 국유화후 해외매각은행

태국중앙은행은 1998년 1월 부실이 심한 싸얌시티은행(Siam City Bank: SCB)<sup>17)</sup>, 퍼스트방콕시티은행(First Bangkok City Bank), 방콕상업은행(Bangkok Bank of Commerce), 방콕메트로폴리탄은행(Bangkok Metropolitan Bank)에 대한 인수를 발표하고 감자(減資)를 명령하였다.<sup>18)</sup> 또한 1999년 7월 들어 부실채권의 비율이 높은 나콘톤은행(Nakornthon Bank)을 추가로 국유화하게 되어 기존의 끄룽타이은행과 함께 모두 6개 은행을 소유하게 되었다.<sup>19)</sup> 다음은 정부가 이들 은행을 정상화한 후 외국자본에 매각한 과정을 살펴본다.

태국중앙은행은 싸얌시티은행에 대한 1단계 증자로 3,000억 바트에 달하는 신규 우선주 발행과 2단계 증자로 1,000억 바트에 달하는 증자를 위해 싸얌시티은행 부채의 출자전환, 신규여신지원, 국내시장에서의 30~40억 바트의 회사채 발행을 통해 싸얌시티은행을 정상화시킨다는 1998년 8월 14일 발표가 있었다. 1998년 9월 22일 싸얌시티은행은 추가로 400억 바트의 증자를 위하여 1998년 5월에 승인된 신주발행을 연말까지 실시한다고 발표하였다. 싸얌시티은행 주식의 26%를 소유하고 있는 최대주주인 The Crown Property Bureau도 지분유지를 위해

17) 1998년 상반기중 SCB의 부실여신은 6개월 기준으로 전체 여신의 18%에 달했으며, 영업손실액은 110억 바트에 달했다. 한편 전년도인 1997년 상반기에는 36억 8,000만 바트의 이익을 내었다. 전년도에 79.5바트에서 8.5바트 사이를 움직인 주가는 1998년 9월 21일 현재 9바트로 마감하였다.

18) BOT는 SCB에게는 납입자본을 1억 1,460만 달러에서 1,200만 8,000 달러로 감자하고, FBCB에게는 2억 600만 달러에서 20만 8,000 달러로 감자하고, 그리고 스켄달에 쩌든 BBC에게는 7,080만 달러에서 3,750만 달러로 감자할 것을 명령하고 이들 3개 은행의 자본 부족분에 대한 증자를 명령하였다.

19) 1999년 7월까지 국유화한 6개 은행에 투입한 공적자금은 3,000억 바트(81억 달러)에 달해 정부에게 너무 많은 재정적 부담을 지웠다.

신주공모에 참여할 것이다. 신주발행이 이루어지면 외국인 투자가의 지분은 현재의 32.9%에서 49%로 증가될 것이다<sup>20)</sup>.

국유화를 통해 외국인에게 매각된 사례를, 나컨톤은행, 랏따나씬은행(Radanasin Bank), 방콕메트로폴리탄은행을 통해 살펴본다. 나컨톤은행의 매각과정을 살펴보면, 나컨톤은행을 창업 경영해 온 왕리(Wanglee)는 1999년 4월 BIS 자기자본비율이 2.54%에 불과하여 국제기준 8.5%에 훨씬 미달하자 정부에 자본금 지원을 신청하면서 1999년 5월까지 외국인 투자자를 선정하기로 하였다. 영국의 스탠다드차터드은행과 싱가포르의 유나이티드오버시즈은행 중 조건이 좋은 은행을 영입하려고 하였다. 정부의 투자가 완료되면 정부보유지분이 50%로 증가하게되며 창업주인 왕리가 등 기존 주주지분의 자본감축이 정부지원의 전제조건에 따라 이행되어야 한다. 공적자금이 투입되면 외국인 투자지분이 30% 이상이 되고 왕리 등 기존 주주들의 비중이 축소된다. 1999년 4월 부실채권 비율이 56%로 총 670억 바트의 부실채권 보전 적립금중 56억 바트만을 적립하였다.<sup>21)</sup>

태국의 상업은행 가운데 자산크기가 하위 2~3번째이며 68개 지점을 가진 나컨톤은행의 인수에 관심을 표명한 영국의 스탠다드차터드은행(Standard & Chartered Bank)은 매입계획을 내놓았지만 정치적인 압초에 걸렸다. FIDF가 너무 싸게 인수하려 한다고 제동을 걸며 133억 바트(3억 5,900만 달러)를 투자해 20%의 지분만 가져가라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매입선인 영국의 스탠다드차터드은행은 중앙은행에 FIDF를 통해 상기 조건(133억 바트 투입하여 20%의 지분 보유)으로 공적자금투입을 제의하였다. 이에 중앙은행은 그 정도 투입해 가지고는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 비율 8%를 맞출 수 없으며 다른 국유화 은행들처럼 공매에 부치겠다고 주장하며 1999년 7월 12일 나컨톤은행의 국유화 조치를 발표하였다. (Krungthep Thurakij 1999/07/13). 나컨톤은행의 부실채권은 60%로 금액으로는 350억 바트(9억 4,000만 달러)로 부실채권 증가추세가 멈추지 않았다. 정부는 부실채권이 더 이상 증가하지 않게 조치한 후 외국인에 매각한다고 발표하였다. 부실채권 비율이 너무 높아 수개월간 추진한 인수를 포기했던 영국의

20) [http://www.bangkokpost.net/220998/220998\\_Business14.htm](http://www.bangkokpost.net/220998/220998_Business14.htm) 참조.

21) 1999년 4월 부실채권 비율이 56%로 총 670억 바트의 부실채권 보전 적립금중 56억 바트만을 적립하였다(Nation 1999/04/02).



스탠다드차터드은행이 소매영업을 본격화하기 위해 1999년 9월 123억 8,000만 바트(3억 2,000만 달러)에 나컨톤은행 지분 75%를 인수하였다. 정부는 1999년 7월 12일 부실에 빠진 동 은행을 70억 바트의 공적자금을 투입하고 국유화하여 자기 자본 비율 8.5%를 유지하게 한 후 매각함으로써 두 달만에 50억 바트 시세차익을 얻게 되었다(Nation 1999/09/06).

랏따나씬은행의 매각과정을 살펴보면, 1997년 12월에 폐쇄된 56개 파이낸스 회사의 우량자산을 모아 새로이 설립한 랏따나씬은행은 자산규모가 상업은행중 가장 작은 국영 상업은행으로, 폐쇄 조치된 램통은행(Laem Thong Bank)을 합병한 바 있다. 램통은행 외에도 국영 끄룽타이타나짓사에 합병된 방콕유니온은행(Union Bank of Bankok)이 있다. 정부는 1999년 3월 랏따나씬은행의 민영화를 위해 원매자에게 주식의 76%까지 매각하고 FIDF는 최저 24%만 보유하기로 하였다(Asian Wall Street Journal 1999/03/18). 1999년 11월 30일 싱가포르의 3대 은행인 유니타드오버시즈은행(United Overseas Bank: UOB)이 시티은행(Citibank), 영국의 스탠다드차터드은행을 제치고 지분 75%를 인수함으로써 매입협상을 종결지었다. 이로써 랏따나씬은행은 태국에서 네 번째로 외국인에게 매각된 은행이 되었다. 랏따나씬은행의 매입가격은 151억 바트(3억 8,900만 달러)이며, 추후 부실자산을 분리하여 별도 관리하게 되면, 태국중앙은행이 86억 바트의 부실자산을 매입해 주기로 되어 있어 실제 매입가격은 65억 바트로 줄어들 예정이다. 당시 부실채권 비율은 총여신 540억 바트의 80%로 부실자산을 정리하는 작업은 수개월 정도가 걸릴 것이다. 랏따나씬은행은 주로 방콕지역에 65개 지점 보유하고 있다. UOB는 이전에는 태국에서 역외금융만 취급했지만 이번 인수를 계기로 태국내의 소매금융시장에까지 진출하게 되었다.

외환위기 이후 정부에 의해 국유화됐던 방콕메트로폴리탄은행도 2000년 1월 구조조정 계획을 발표하였다. 25%의 인원(1,000명)을 감원하고 부실채권 비율도 연말까지 40%로 줄일 예정이다. 외환위기 당시 부실채권 비율이 전체 대출의 70%에 달하여 특히 부실이 심했다. 감원방법으로는 조기퇴직제를 도입하여 퇴직 보상금을 최고 20개월치에 해당하는 급여를 주기로 하였다. 최종 직원수가 4,000명 내외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지점수는 현재대로 177개 그대로 두기로 하였다. 구조조정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됨에 따라 그동안 인수를 타진해 온

홍콩상하이은행(Hong Kong & Shanghai Banking Corp.: HSBC)이 2000년 4월 방콕메트로폴리탄은행 지분 75%를 인수하기로 하였다(Nation 2000/04/27) 인수 후 5년 후에 회수하지 못하는 부실채권에 대해서는 태국정부가 일정한 보상을 해 준다는 조건으로 협상을 타결지었다.<sup>22)</sup> 정부는 현금 366억 바트에 경영권을 넘기고 난 후 70억 바트를 은행 자본금으로 되받을 것이기 때문에 실제 매각대금은 436억 바트(약 11억 달러)이다. 그러나 정부가 방콕메트로폴리탄은행을 인수한 후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투입한 공적자금이 640억 바트였기 때문에 204억 바트의 손실을 보았으며 부실채권이 현재보다 더 늘어나면 이를 보상해 주기로 했기 때문에 정부 손실은 더 커질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방콕메트로폴리탄은행이 규모면에서 8번째 은행이란 점 때문에 기존 매각한 다른 은행보다 비싸게 매각하였으며, 방콕메트로폴리탄은행이 분기마다 수 십억 바트씩 적자가 났기 때문에 외국은행에 짐을 떠 넘겼다고 안도하는 분위기이다(Nation 2000/05/22).

### 3. 경영권방어 은행

경영권 방어를 위해 스스로 생존의 길을 모색하고 있는 은행은 방콕은행(Bangkok Bank), 아유타야은행(Bank of Ayudhya), 타이군인은행(Thai Military Bank), 태국농민은행(Thai Farmers Bank), 싸암상업은행(Siam Commercial Bank)이 있다.

상업은행 가운데 자산 면에서 최대 규모이고 최우량은행이자 보수적 경영으로 정평이 나 있는 **방콕은행**이<sup>23)</sup> 1999년 2월 들어 부실채권이 48%로 증가한 사실이 발표되자 다른 은행들은 오죽하겠는가 우려감에서 은행주가가 일제히 폭락하였다.<sup>24)</sup> 방콕은행은 부실채권충당금 적립의무를 충족시키기 위해 1999년 중

22) 우선 146억 바트(약 3.84억 달러)를 내고 75.02% 지분을 인수하였다. 협상시 부실채권 비율에 대한 논란 끝에 대출금 1,400억 바트 가운데 80%가 부실채권이라는데 대해 정부 당국과 최종 결론을 내렸다(Nation 2000/05/18).

23) 1998년 말 기준으로 총 여신금액은 8,510억 바트(약 236억 달러)로 상업은행 가운데 최고였다.

24) 1999년 2월 2일 은행주가 폭락율이 방콕은행 4.12%, 타이농민은행 5.36%, 크룽타이은행 12.12%, 아유타야은행이 4.17%로 폭락하였다(Business Day 1999/02/03).

자본금 700억 바트(약 19억 달러) 증자 계획의 일환으로 1999년 상반기 중 200억 바트(5억 3,900만 달러)의 증자를 추진하였다.<sup>25)</sup> 1999년 상반기에 200억 바트(5억 3,900만 달러)의 증자를 하였다(Asian Wall Street Journal 1999/02/15). 중앙은행 규정에 따라 2000년 말까지 부실채권의 보전을 위해 총 1,597억 바트(약 57억 4,000만 달러)를 충당해야 한다. 이행을 못하면 정부의 지원을 요청해야 하고 정부의 지원을 요청하면 경영권을 내 놓아야 한다. 2000년 4월 들어 방콕은행은 390억 바트(약 10억 달러) 증자를 발표하였다. 현재 납입자본금은 146억 6,000만 바트로 증자규모는 납입자본의 2배 규모로, 증자후 외국인 지분은 49%이하로 내려가게 된다. 주당 20~25바트에 15억 5,000만 주의 신주를 발행하여 내국인에게 팔 예정으로 태국을 상징하는 방콕은행을 태국인 소유에 두자는 여론도 큰 작용을 하였다(Nation 2000/04/07). 2000년 들어 지난 2년 동안 손실을 지속하던 방콕은행이 조기퇴직기금 적립과 220억 바트 대손충당금 적립으로 인한 1/4분기 손실(223억 바트)에서 벗어나 2/4분기부터 이익을 내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Nation 2000/04/27).

태국에서 다섯 번째로 큰 은행에 랭크돼 있는 **아유타야은행**의 증자노력이 상당한 성공을 거두었다. 우선주 후순위채권 발행 등을 통해 260억 바트(약 7억 2,000만 달러)의 자본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되었다(Bangkok Post 1999/03/18). 1999년 6월 들어 대만의 Southeast Asia Investment Holding사가 아유타야은행 지분 10%를 매입하겠다고 협상을 제의하였다. 아유타야은행은 자본금을 현재의 100억 바트에서 200억 바트(5억 4,000만 달러)로 증자하기 위해 보통주 10억주를 발행한 바 있다.<sup>26)</sup> 대만의 South East Asia Investment Holding사가 우선 2억 5,000만 주를 인수했고 1999년 8월 16일까지 1억 5,000만 주를 추가로 매입하겠다고 약정했다가 1999년 8월 들어 동 회사는 아유타야은행에 대한 투자계획을 포기한다고 하였다. 이유는 아유타야은행의 주가가 1999년 8월 16일 현재 계약 당시 약정했던 주당 20바트보다 많이 떨어진 주당 13.5 바트에 거래되었기 때문이었다. 그밖에도 대손충당금 적립 조건이 너무 엄격하고 가파른 것도 불만의 원인이었다. 아

25) 1999년 3월 현재 부실채권충당금의 72%까지 적립하였다(Business Day 1999/03/19).

26) Bangkok Post, 1999. 6. 8.

유타야은행의 1999년 상반기 영업실적이 156억 바트의 손실과 대손충당금이 282억 4,000만 바트에 달했다. 따라서 아유타야은행은 30억 바트(8,100만 달러)의 자본금 조달에 차질이 발생한 셈이었다. 부실채권 비율을 1998년 말의 37.2%에서 1999년 말에는 32.6%로 감축하여 태국은행의 평균치인 38%보다 낮게 낮추었다(Bangkok Post 1999/10/15). 아유타야은행의 재무상태는 비교적 양호하며 2000년 말까지로 되어있는 부실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의무의 85%를 적립하고 있다. 대손충당금 적립의무를 100% 이행할 경우 60억 바트의 자금이 추가로 필요하며, 자기자본 비율도 현재의 16.6%에서 13.45%로 낮아질 가능성이 있어 1999년 10월 현재까지 600억 바트의 증자에 성공한 아유타야은행은 2000년 이후 증시 여건이 나아지면 증자를 실시할 계획이다.

1999년 6월 들어 타이군인은행은 300억 바트(8억 1,000만 달러)의 증자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중 절반은 정부에 공적자금을 요청하고 절반은 일반 공모를 통해 조달할 예정이다.<sup>27)</sup> 육군은 자금이 부족하여 이번 증자에 참여할 수 없다고 하여 군의 지분이 현재의 42%에서 25%로 감소될 것이어서 지배력 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Bangkok Post 1999/06/23). 타이군인은행의 공적자금 요청을 방콕은행, 타이농민은행, 타이타누은행, 싸암상업은행 등과 함께 외환위기 이후 확실히 살아 남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에 따라 태국금융계는 환영하였다. 타이군인은행은 공적자금을 요청했지만 정부는 타이군인은행에 대한 경영권을 그대로 인정하였다. 최근 들어 태국정부는 공적자금을 투입한 은행에 대해서도 경영권을 그대로 유지하게 하려는 새로운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다른 상업은행들이 이러한 사례를 주시하고 있다. 타이군인은행은 2000년 들어 9억 9,600만 신주 발행 후 90% 이상 태국인 지분율을 지키게 되었으며, 외국인은 4%를 소유하는 데 그쳤다. 새 주주로 통신재벌 탁썬 씨나왓트라(Thaksin Shinawatra), 위스키 재벌 짜른 씨리왓타나팍디(Charoen Siriwatthanapakdi), 태국생명보험(주) 등 3개 재벌이 11%를 보유하게 되었다. 군의 보유지분은 기존의 4억 2,000만 주에 신규로 1억

27) 태국정부는 1998년 8월 3,000억 바트의 은행구조조정 기금을 조성 완료하고 정부지원을 필요로 하는 은행에게 이를 요청하도록 하고 있다. 지원조건으로는 정부에서 지원 받은 만큼 대응자금으로 동일 금액을 자체조달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Business Day 1999/08/13).

2,000만주를 더 보유하게되어 총 11%의 수준을 유지하였고, 재무부 지분은 49%, 소액주주 지분은 15%이다(Business Day 2000/04/18).

1998년과 1999년 초에 증자 및 후순위채 발행 등으로 700억 바트(18.9억 달러)의 자본금을 확충한 타이농민은행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3번째로 1999년 7월 신주인수권(Warrant) 발행방식으로 240억 바트(6억 5,000만 달러)에 달하는 대규모의 증자를 실시하였다. 신주인수권(Warrant)을 산 투자자는 일정 기간 후 발행될 신주와 교환하는 방식이다. 1999년 7월 8일 종장가격이 주당 75바트 하는 타이농민은행 주식을 기존 주주에게 주당 20바트에 11억7,600만 주를 배정하여 모두 판매에 성공하였다. 증권시장 많이 호전되자 증자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보다 유리한 증자방식도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는 분석이다. 17.5%인 타이농민은행의 자기자본 비율이 증자를 마치고 나면 정부가 요구하는 최소기준인 8.5%보다 훨씬 높은 21.9%가 된다.

타이농민은행은 골치 아픈 업무를 자회사에 이양하고 은행은 본업에 전념하겠다는 전략으로 자본금 40~50억 바트의 부실채권 관리를 전담할 자회사를 설립하기로 하였다. 타이농민은행이 안고 있는 부실채권의 33.3%에 해당하는 800억 바트(21억 6,000만 달러)의 관리를 자회사에 전담시키기로 하였다. 타이농민은행의 1999년 11월초 현재 부실채권은 800억 바트로 총여신의 33%로 빠른 속도로 개선을 보이고 있다(Nation 1999/11/01). 자회사는 해결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주기로 하고 3년 계약으로 GE 캐피탈과 골드만 삭스에게 부실채권 관리를 위한 기술적 업무를 위임하였다(Bangkok Post 1999/07/09). 태국에서 부실채권 관리를 전담할 단독 자회사를 설립한 것은 타이농민은행이 처음이다. 그밖에도 인원감축을 비롯한 경영개선으로 2000년 1/4분기 타이농민은행은 외환위기 이후 적자에서 벗어나 처음으로 3억 바트의 흑자로 돌아섰다.<sup>28)</sup> 신용평가회사인 Fitch IBCA는 1999년도 영업실적을 근거로 농민은행이 2000년도에는 흑자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 바가 있다(Business Day 2000/01/24).

28) 1999년 1/4분기 영업실적에서 실제 영업이익 내고도 부실채권 대손충당금 적립으로 70억 바트(1.9억 달러)의 적자를 보았다. 1999년 3/4분기 영업실적도 대손충당금 적립으로 적자를 보았으나 영업실적이 크게 호전되고 전망도 좋아졌다(Bangkok Post 1999/04/22).

싸암상업은행은 현 짜끄리(Chakri)왕조의 라마(Rama)5세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다. 태국 왕실재산관리국은 태국의 은행들이 모두 외국인 수중에 들어 간다 하더라도 싸암상업은행 만큼은 태국인 소유로 남기겠다고 다른 모든 비핵심 재산을 팔아서라도 이 은행만은 지키겠다고 치라유(Dr. Chirayu) 왕실재산관리국 이사가 밝혔다. 싸암상업은행은 자본금을 640억 바트에서 700억 바트(약 20억 달러)로 늘렸다(Bangkok Post 1999/04/02). 신주는 해외에도 팔겠지만 외국인 투자비중은 30% 한도를 지키겠다고 하며 정부에 공적자금 투입을 요청하였다.<sup>29)</sup> 이에 따라 정부가 총 지분의 40%를 보유하고 왕실재산국이 30%정도를 분산하여 소유하게 되었다. 싸암상업은행은 1999년 2/4분기중 480억 바트의 총당금을 적립하여 총 800억 바트를 적립하였다. 이는 중앙은행이 규정하고 있는 수준 이상으로 적립하여 상업은행중 양호한 적립실적을 올렸다(Business Day 1999/07/21). 그밖에도 신규대출은 늘지 않고 부실채권 문제를 안고 있는 이들 은행들은 인원감축과 지점감축만이 현 불황을 버틸 수 있는 수단으로 여겨 2000년 들어 30%까지 인원을 감축할 예정에 있다. 2000년 1/4분기 싸암상업은행은 외환위기 이후 적자에서 벗어나 처음으로 6억 바트의 흑자로 돌아섰다.

#### 4. 국영 크룽타이은행

외환위기 이후 6개 은행을 흡수 합병했던 크룽타이은행(Krung Thai Bank)은 2000년에는 계획한 목표를 20%나 초과한 1,700억 바트(약 46억 달러) 수준의 부실채권을 구조조정할 계획이다. 대출관행 비리 수사가 한창 진행중인데 대규모 적자를 발표한 크룽타이은행은 1998년 상반기의 129억 적자보다 증가한 1999년 상반기 적자가 232억 바트(6.05억 달러)에 달하였다. 크룽타이은행에 대한 감사결과 드러난 부실채권 비율은 59.3%로 3,930억 바트였다. 적자의 원인은 외환위기 이후 부실은행을 흡수하면서 부실채권이 급증하였고, 이에 따른 적

29) 정부는 1998년 8월 3,000억 바트 은행구조조정 기금을 조성하고 정부지원을 필요로 하는 은행의 요청을 받고 있다. 이 경우 정부에서 지원 받은 금액과 똑같은 금액을 자체조달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립금 충당 등으로 영업적자가 크게 증가하였다. 크롱타이은행은 1999년 3/4분기에 200억 바트의 대손충당금을 새로이 적립하여 총적립금이 1,822억 바트에 달하였다. 크롱타이은행은 경영개선책으로 2000년까지 17개 지점을 폐쇄하고 일부 지점은 단순한 현금인출 서비스만을 할 수 있는 “cash shop”으로 바꾸는 등 구조조정도 병행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Bangkok Post 2000/01/27).

<표 6> 구조조정후 태국의 상업은행 현황 (2000년 5월 현재)

은 행 명	설립	소유	구조조정후	비고
1 Siam Commercial Bank	1906	왕실	자구책	
2 Nakornthon Bank	1933	화교	국유화후 해외매각	(영)Standard &Chartered Bank
3 Bank of Asia	1939	화교	해외매각	(화)ABN AMRO
4 Siam City Bank	1941	화교	국유화	
5 Bangkok Bank of Commerce	1944	화교	폐쇄	AMC에 이천후
6 Bangkok Bank	1944	화교	자구책	
7 Bank of Ayudhya	1945	화교	자구책	
8 Thai Farmers Bank	1945	화교	자구책	
9 Laem Thong Bank	1948	화교	Radanasin Bank에 합병	
10 Union Bank of Bangkok	1949	화교	Krung Thai Thanakit社에 합병	
11 Thai Danu Bank	1949	정부	해외매각	Development Bank of Singapore
12 Bangkok Metropolitan Bank	1950	화교	국유화후 해외매각	(영) HSBC
13 Thai Military Bank	1957	재향 군인	자구책	
14 First Bangkok City Bank	1960	화교	국유화	
15 Krung Thai Bank	1966	정부	부실은행 인수	
16 Radanasin Bank: 폐쇄 파이낸스회사 자산으로 신규설립	1998	정부	국유화후 해외매각	(싱)United Overseas Bank

\* 자료: 상기내용을 정리하여 필자가 작성, 2000. 5. 28.

정부는 2000년 4월 18일 중앙은행의 FIDF가 100% 소유하는 형태로 부실채권을 관리할 자산관리공사(AMC)를 설립하여, 크롱타이은행의 부실채권 5,370억 바

트(약 145억 달러)를 이전하기로 하였다.<sup>30)</sup> 이전 후 남게될 부실채권은 16.5%로 한 때 45%가 부실채권이었음 감안하면 이제야 부실채권의 부담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2000년 4월 대손충당금 적립률이 총 부실채권의 86%이며, 2000년 6월말까지 100%가 달성하는데 추가로 300억 바트가 필요하다. 대손충당금 적립률을 100% 완료하여야 AMC에 부실채권 이전이 가능하며, 부실채권을 이전하면 2000년 말에는 차츰 적자경영에서 탈피할 것으로 예상되며, 자기자본 비율도 11%로 높아져서 대출도 회복될 것이다(Business Day 2000/04/25).

이상과 같이 15개 상업은행의 구조조정 현황을 살펴보았다. 상업은행의 자기자본 확충 문제는 2000년까지 갈 것으로 전망된다.<sup>31)</sup> 그러나 은행의 자본금 확충과 1999년 2/4분기 이후 경기가 회복되고 있고 채무자/은행간에 자금거래의 내용이 나아지고 있지만 부실채권의 비율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외환위기 이후 6개 상업은행을 인수한 정부가 나콘돈은행, 랏따나쑤은행, 방콕메트로폴리탄은행을 해외에 매각하였다. 아직 매각되지 않은 3개 은행의 매각이 성사될 때까지 정부가 운영하는 은행 시스템은 효율성이 떨어지고 경쟁력의 저하가 예상된다. 정부의 은행지배력이 외환위기 이전에 비해 엄청나게 커짐과 동시에 국영 크룽타이은행의 심각한 부실도 풀어야할 과제로 남아 있다.

## 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외환위기 이후 약 3년 동안 있었던 태국의 상업은행에 대한 구조조정의 내용과 성과를 정성적인 면에서 살펴보았다. 태국의 금융기관발전기금(FIDF)이 주도한 은행구조조정은 부실은행의 신속한 퇴출과 인수합병, 국유화를

30) 재무부 발표에 따르면 현재 정부부채는 1조8,000억 바트(GDP 40.1%)이며, 여기에 FIDF의 부채 7,700억 바트까지 포함하면 총 정부의 공공부채는 약 2조6,000억 바트(GDP 55.9%) 정도에 이른다. 정부부채의 대부분은 경제위기로 인한 금융기관의 부채를 떠맡아 발생한 것이다.

31) 은행들 발생한 부실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1999년 6월말까지 40%를 채우고 2,000년 말까지는 100% 채워야 한다.



통한 해외매각, 그리고 자구책 모색 등의 방법을 통해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을 제고하고 정부의 재정지원을 통해 은행의 자본충실도를 제고하는데 많은 기여를 하였다. 또한 각종 건전성 규제기준이 정비되고, IMF와 협의하에 개정 파산법 등과 같은 경제개혁입법이 정비된 것도 큰 성과라고 할 수 있겠다.

외환위기 이후 아시아은행과 타이타누은행이 외국은행에 매각되었다. 정부는 부실이 심한 6개 은행을 국유화하였으며, 이 가운데 방콕상업은행은 AMC로 이진된 후 폐쇄되었으며, 나컨톤은행과 랏따나썬은행, 그리고 방콕메트로폴리탄은행은 외국은행에 매각되었다. 나머지 싸얌시티은행과 퍼스트방콕시티은행도 매각대상을 물색중이다. 부실은행의 인수로 인해 국영 ڠ룽타이은행의 부실문제도 심각한 상황이다. 국유화한 부실은행의 해외매각이 성사될 때까지 정부의 은행 지배력이 외환위기 이전에 비해 커질 것이며 국유화한 은행 시스템의 효율성이 떨어져 경쟁력 저하가 예상된다. 이를 타개하기 위한 방법으로 정부는 ڠ룽타이은행의 재무구조를 부실채권을 관리할 AMC를 통하여 개선하기로 하였다.

방콕은행, 싸얌상업은행, 타이농민은행, 타이군인은행, 아유타야은행은 자구책을 마련하여 생존을 위한 구조조정의 길을 가고 있다. 이들 은행들이 자력으로 자금을 끌어들이지 못하면 정부의 지원을 요청해야 하며, 정부지원을 요청하면 경영권을 박탈당하기 때문에 증자와 대손충당금의 적립, 그리고 감량경영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타이농민은행이 부실채권 관리를 전담할 자회사를 태국 은행 최초로 만든 것은 적극적으로 부실채권 문제해결에 나서는 것으로 평가되어 다른 은행도 이를 따를 것으로 보인다. 1999년중 정점에 달했던 은행의 부실채권 문제가 2000년 들어 점차 개선되고 있는 이유는 대손충당금을 법정기준으로 쌓아 가고 있고 개혁파산법의 집행과 부채구조조정이 원만히 이뤄지고 있는 것도 그 원인으로 볼 수 있겠다.

1999년 은행의 경영실적을 보고한 거의 모든 은행이 적자를 기록하였다. 은행 경영적자의 주 요인은 대부분 영업에서는 순익을 냈지만 부실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납입으로 인한 손실 때문이었다. 그러나 2000년 1/4분기 들어 아시아 은행, 싸얌상업은행, 농민은행의 경영실적이 흑자로 돌아서게 되었다. 나머지 은행들도 구조조정 효과가 나타나고 부실채권 대손충당금 적립이 모두 끝나면 은행경영실적이 흑자로 돌아서는 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상과 같이 은행의 구조조정과정에서 나타난 특징을 살펴보면 규모면에서 상대적으로 소규모은행이 폐쇄 혹은 국영화 혹은 해외매각의 길을 걸었으며, 규모가 큰 5개 시중은행은 자구책을 찾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한 이유는 폐쇄된 소규모은행의 부실이 상대적으로 심하거나, 외국은행들이 태국내 소매금융에 대한 진출을 위해 상대적으로 좋은 조건과 적은 비용으로 소규모은행을 인수할 수 있는 이점이 있었기 때문이다. 정부의 국유화방향 또한 금융산업의 효율성과 경쟁력강화에 우선 순위를 두었기 때문에 이에 미치지 못하는 소규모은행이 국유화의 우선 대상이 되었으며, 소규모은행에 대한 인수비용 또한 상대적으로 적었고 외국인에게 매각하기에도 유리하였기 때문이었다. 정부는 이들 소규모은행을 국유화 한 후 외국은행에 매각함으로써 외국은행과의 경쟁을 통하여 태국은행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자 하였다.

한편 규모가 큰 은행은 강제적인 개혁보다는 자율적인 개혁에 정책방향을 정한 듯하다. 정부가 강제적으로 이들 은행을 정리할 경우 정치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지분소유자들의 반발이 예상될 뿐만 아니라 외국인에게 매각하기에는 태국인의 정서상 어려운 점도 작용한 것 같다. 예로 타이군인은행은 군부가 대주주이며, 씨암상업은행은 왕실의 자산관리국(Crown Property)이 대주주이기 때문에 이들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으며, 또한 외국인에게 이들 은행을 싼값으로 매각하는데 대한 국민들의 자존심을 앞세운 반발과 이들 은행 살리기 캠페인에 국민들이 동참하여 성공적으로 증자를 이끈 점 등도 이들 은행이 자구책을 모색한 생존으로 정책방향을 잡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새로운 금융환경에서 태국의 금융산업은 새로운 투자자의 물색, 소유주가 경영까지 맡는 지금까지의 관행의 타파, 신속하고 강도 높은 구조조정 실행 등을 통하여 새로운 모습으로 변모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이와 같은 변신이 성공하여 국내시장에서 살아남는다 해도 경제위기 후의 혼란을 틈타 태국시장에서 입지를 굳히려는 외국은행과의 경쟁을 통하여 체질을 강화하여야만 태국의 금융산업이 국제경쟁력과 능력을 갖추게 되었다고 평가하게 될 것이다.

## 참고문헌

- 經濟企劃廳調査局編. 1997. 『アジア經濟 1997』. 東京: 經濟企劃廳.
- 權耿德. 1997. 『泰國便覽』. 大외경제정책연구원.
- \_\_\_\_\_. 1999. “동남아국가의 금융 및 기업구조조정”. 『KIEP세계경제』 1999년 6월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김원호 외. 1997. 『IMF 구제금융사례 연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맥킨지 금융팀. 1999. 『맥킨지 금융보고서』. 한국경제신문.
- 田坂敏雄. 1996. “タイの金融市場と金融政策(I)”. 『經濟學論集』. 제17권 제2호. 大阪經濟法科 大學經濟學會.
- さくら總合研究所, 『タイでの事業展開』, 1996.
- IMF. 2000. “IMF Completes Final Review of Thai Program”, News Brief No. 00/27, (May 8).  
<<http://www.imf.org/external/np/sec/nb/2000/nb0027.htm>>
- Limthammahisorn, Watsaya. 1998. “Financial Crisis in Japan, South Korea and Thailand: A Comparison, 1997”. <<http://www.bbl.co.th/research/aug97topic1.html>>
- Sussangkarn, Chalongsop. 1998. "Thailand's Debt Crisis and Economic Outlook". Presented at January 16, 1998 Regional Outlook Forum. ISEAS Singapore.  
<[http://www.nectec.or.th/bereaux/tdri/mep\\_fore.htm](http://www.nectec.or.th/bereaux/tdri/mep_fore.htm)>

## <정기간행물>

- Asian Wall Street Journal, 1999. 2. 15. ~ 5. 27.
- Asiaweek, 1997. 2. 28.
- Bangkok Post, 1998. 2. 2 ~ 2000. 4. 24.
- Business Day, 1999. 2. 3. ~ 2000. 4. 25.
- Far Eastern Economic Review, 1997. 12. 8,
- Krungthep Thurakij, 1999. 7. 13.

Nation, 1999. 4. 2. ~ 2000. 5. 23.

Sayamrat Weekly, 1997. 8. 10 ~ 16,

TIME, "Americans for Thailand!", 1998. 3. 30.

### <Internet Site>

<[http://www.bangkokpost.net/170998/170998\\_Business01.htm](http://www.bangkokpost.net/170998/170998_Business01.htm)>

<[http://www.bangkokpost.net/220998/220998\\_Business14.htm](http://www.bangkokpost.net/220998/220998_Business14.htm)>

<<http://www.bbl.co.th/research/ aug97topic1.html>>

<<http://www.imf.org/external/np/sec/nb/2000/nb0027.htm>>

<[http://www.nectec.or.th/bereaux/tdri/mep\\_fore.htm](http://www.nectec.or.th/bereaux/tdri/mep_fore.htm)>

<<http://www.set.or.th>>, 1995~2000 various issues.

# A Study on the Financial Reform in Thailand

## — The Restructuring of the Banking Sectors —

Ahn Jong-Yang, Ryu Geun-Woo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rvey the causes of financial crisis, problems of financial sector, and the financial reforms, especially the restructuring of 15 commercial banks under IMF economic reform programme in Thailand.

Since 1995, current account deficit was increased on high proportions. Because of these factors, Thai economy was undermined by capital liberalization without proper mechanisms to prevent excessive borrowing, leading to a liquidity crisis in the financial sector. Capital shortages among ailing financial companies and commercial banks forced the Financial Institutions Development Fund (FIDF) to pour in huge Baht to rescue them, however, to no avail.

The Thai government amended laws in order to facilitate financial reform. The legal changes are likely to accelerate the pace of structural reform of financial sector, including the laws regarding foreign currency reserves, covering FIDF, and the Bankruptcy Act, the laws covering the FRA and AMC.

By the restructuring of the banking sectors, now three banks were closed, five banks were majority-owned by foreign banks, three banks were nationalized, five banks are seeking the survival by recapitalizing. Thai banks need to improve their operations, technology and staffs to match international standards to survive. The banks which survive the financial crisis will be the ones with strong management teams.

<Key word>

financial reform, financial sector, commercial bank, Thai, Thailand